

대학은 장기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이 상 든 | 중앙대 법학과 교수

1. '특기자 입학' 붐물

인기기사 그룹의 일원인 유아무개가 명문 사립대학인 K대에 특수재능 보유자로 입학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다. 금년에도 연대, 고대 등 우수한 사립대학에 학생발명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특기자 전형으로 대거 합격했다.

이처럼 많은 대학에서 각종 특기자를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비독을 잘 두거나 영어를 특출나게 구사해도 대학을 가고, 경시대회 입상자나 선교 특수재능자도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옆길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영어 특기자로 입학하기 위해 조기유학을 가고,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발명전에 출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 이런 세태를 증명하고 있다.

2002년에 세 입시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특기생은 물론이고, 국가유공자 자녀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특수 입학 케이스가 붐물을 이룰 것이다. 반면에 수능시험은 갈수록 쉬어지고 있어 변별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니 학업 외적인 요소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무슨 시험이든 간에 그것이 어려우면 실력 차이

가 뚜렷이 나타나지만 시험이 쉬워지면 실수 안 하는 요령을 익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이처럼 대학은 수능시험 외의 요소를 참조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그나마 수능시험은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특기생 입학 등 다양한 입학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21세기는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이므로 사회는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대학은 다양한 배경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서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주장이 허구로 가득 찬 것이며, 또한 대학교육의 본질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문제는 '고교 교육'

수능시험만으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변별력을 갖춘 시험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외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을 교과서 위주로 평이하게 내고 있어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 물론 교과서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그레도 일류대학이라는 주립대학의 SAT 평균성적이 1200~1300점 정도인데 반해 캘리포니아 공대(Cal Tech) 같은 초일류 대학은 평균성적이 1500점이나 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수능시험은 변별력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교과서만 이해한다고 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우리 교과서가 얼마만큼이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수능시험만이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수능성적 외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학생들의 성적부, 교사의 추천서 등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만일 이런 것들을 입시에 반영했다가는 온갖 부정과 협잡이 성행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고교시절의 스포츠, 음악 등의 과외활동은 대학입학 결정에 상당 부분 반영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명문고교는 한학년 학생이 50~100명 정도에 불과해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추천서의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육은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평균화로 인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찾아보기조차 어렵고, 흔해 빠진 컴퓨터시설이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여름철에 교실은 한증막 같고, 겨울철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되는 학교도 있다. 세계화 시대라고 하지만 영어신문을 읽고 영어 뉴스를 들을 수 있는 교사가 얼마

나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무리한 평준화 정책 때문에 교실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배울게 없어 잠이나 자고, 공부 못하는 학생은 아예 학교에 놀러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21세기의 인재를 양성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또 이런 관공에 대학이 심지어 미인대회 입상자를 특기 입학시키겠다고 나서고, 명문대학마저 한가지 특기만 있으면 대학에 들어 갈 수 있는 뒷구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것은 실로 교육의 포기과 다를 바 없다.

3. 대학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들은 튀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대학출신 연예인을 총동원해서 학교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너도 나도 기발한 특기생을 선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입시요강은 특기자 입학, 특별전형 등으로 누더기처럼 돼버렸다. 물론 해당 대학은 이런 특별 입학생이 전



체 학생 수에 비해 미미한 숫자라고 항변할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 효과는 적지 않다. 특히 대학이 마치 장기 자랑이나 하는 곳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할 것이다.

혼돈에 빠져 있기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우리 대학은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시설과 교육의 질적 수준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세칭 일류 대학은 그런대로 대학이라는 명맥이나마 이어나가겠지만 중상위권 이하의 대학들은 생존이 위협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방 사립대학은 학부학생이 미달 상태이고, 들어온 학생들도 한두 학기만 지나면 서울로 편입학해서 학교를 떠난다. 서울에 소재한 큰 대학들도 이미 대학원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제는 유수한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대학에서 자리잡기가 어려우니 국내 대학원이 외면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많은 대학들에게 특기 입학과 특별전형은 배력적인 것이다. 한쪽에선 자기 대학을 알려야 하고, 또 한쪽에선 학생 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서 특기 입학이 성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학생 수를 채우기에 급급한 대학들이라면 특기 입학을 하던 특별전형을 하던 간에 별다른 관심거리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명문대학 마저 특기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할 것이다. 우선 명문대학이라면 졸업생의 지적 능력을 보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고, 그러기에 명문대학일수록 입학생을 학업능력 위주로 뽑아야 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을 강도 높게 가르쳐야 한다. 미국의 명문 학부대학(Liberal Art College)인 스위스모어, 엠허스트, 칼튼 등의 교육을 보면 우리 대학교육이 잘못되도 한창 잘못됐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대학들이 강도 높은 교육을 시킨다면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제풀에 탈락하고 말 것이다.

4. 대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대안이 있는가?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우수 고등학교 설립을 자유롭게 해서 명문 고등학교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국민 정서상 우수 공립학교를 두기가 어렵다면 사립학교가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이다.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을 학교로 되돌려 주고, 학교가 좋은 시설과 좋은 교사진을 갖추어서 경쟁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수능시험은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 수학과 과학을 잘 하는 학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 어학 과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KAIST나 포항공대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어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이나 과학이 약간 뒤처져도 좋은 인문사회계열 대



학에 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일단 수준 높은 교양과목을 가르쳐야 한다. 요즘 대학에서 유행하는 '무엇 무엇에 대한 이해' 같은 만담조 강의는 교양교육이 아니다. 진정한 교양은 웬만한 전공기초를 모두 포함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과계열은 생물, 물리, 화학의 기본을 모두 공부하게 하고, 인문사회계열은 역사, 경제, 정치, 문화를 수준 높게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전공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대학이 우수한 대학이 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 세대를 양성할 대학이라면 학업능력을 기준으로 입학생을 뽑아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소위 명문대가 앞장 서서 특기 입학생을 선발한다면 그것은 대

학이 스스로 반(反)지성적임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

이상돈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툴레인대(Tulane University)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 이래 중앙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조지타운 대학 쥘부라이트 연구교수와 로욜라 대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저서로는 「환경법」(공저), 「여성과 법」(공저), 「지구촌 환경보호와 한국의 환경정책」, 「국제거래법」 등이 있으며, "Law and Policy of Nuclear Waste Management in Korea", "U.S.-Japan Trade Relation-Comment from the Korean Perspective" 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으며,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